

# 與 철벽 엄호 vs 野 화력 보강

### 이번주 7개 부처 인사청문회 투기 의혹 등 대어 공세 예고 경과보고서 채택도 험로

국회는 이번주 문재인 정부 2기 내각 멤버들에 대한 검증 작업에 나선다. 24일 국회에 따르면 25일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를 시작으로, 26일 김연철 통일부·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27일 진영 행정안전부·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줄지어 열린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7명의 장관 후보자 모두 인사검증을 무난히 통과시키기 위해 철벽 엄호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은 일부 후보자의 도덕성과 전문성에 결격 사유가 있다며 송곳 검증을 베풀고 있다.

이 중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공격이 가장 거셀 것으로 예상된다. 무엇보다 김 후보자가 과거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온갖 논란성 발언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김 후보자 청문회가 열리는 외교통일위원회의 '선수 교체'로 야당 공세에 대비했다. 외통위 소속 7인의 이해찬 대표와 5인의 박병석 의원,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를 각각 국방위와 기재위, 교육위로 옮기고, 4선의 최재성 의원과 재선의 윤우덕 의원, 조선의 박경미 의원을 외통위에 배치해 방어력을 강화했다.

야당은 또 최정호 국토부 장관 후보자의 아파트 증여와 재테크 의혹, 진영 행안부 장관 후보자와 조동호 과기부 장관 후보자의 부동산 투기 의혹 등을 문제 삼을 것으로 보인다.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둔 24일 오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회의실에서 관계자가 청문회 준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당을 비롯한 야당들도 이번 주 초반 일부 상임위원 사보임을 통해 청문회 화력을 보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에서는 인사청문회 당일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하는 상임위는 거의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야당이 호락호락 협조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3·8 개각에 따른 7명의 장관 후보자를 '적재적소 인사'라고 보지만, 한국당은 부실한 인사검증 등을 적극 주장하며 '친북 성향 개각, 대충대충 개각'이라고 규정하는 상태다. 따라서 인사청문회를 마친

뒤 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놓고 여야 간 '2라운드 대결'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여야 4당의 선거제 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추진 여부도 청문회 운영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이번 주 초 패스트트랙이 우여곡절 끝에 성사될 경우 한국당이 장외투쟁에 나서면서 인사청문회 일정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한국당 입장에서 인사청문회가 효과적이라는 대어 공세의 장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인사청문회는 예정대로 진행하되, 공세 수위를 한층 끌어올리는 전략을 택할

가능성도 있다.

4·3 국회의원 보궐선거도 변수로 꼽힌다. 경남 창원성산과 통영·고성 보궐선거에서 정권 심판론을 전면에 내세운 한국당으로선 2기 내각 후보자에 대한 강도 높은 검증을 선거 승리의 지렛대로 활용하려는 전략을 펼 수 있기 때문이다. 인사청문회를 통해 형성될 2기 내각에 대한 여론이 4·3 보선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민주당 역시 한국당의 각종 의혹 제기엔 강력한 맞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박지경 기자 jkpark@kwangju.co.kr

## 시험대 오른 '황교안 리더십'

### 취임 한달...5·18 모독 의원 징계·당직 인선 지지부진

자유한국당 황교안(號)가 닦을 올린 지 오는 27일로 한 달이 다 되어가는 가운데 김진태·김순례·이종명 의원의 '5·18 모독' 징계 문제와 당직 인선 등을 놓고 리더십 시험대에 섰다.

우선 5·18 망언 징계 문제는 김영종 당 윤리위원장의 사의 표명으로 징계 논의 자체가 표류 중이다. 당직 인선의 경우 사무총장과 전략부총장, 당 대변인 등 당장 급한 인선은 단행했지만 조직부총장과 지명직 최고위원 등은 아직 마무리하지 못했다.

정치권에서는 한국당의 5·18 망언 징계 문제와 남은 당직 인선 등을 당 안팎의 논란과 계파 갈등에 불을 지필 수 있는 '화약고'로 꼽고 있다. 이 때문에 황 대표가 최대한 4·3 보선 이후로 모든 과제를 미룰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강

한 결속이 필요한 선거를 앞두고 굳이 불필요한 갈등을 유발할 필요가 없다는 점이다.

만약 한국당이 경남 창원성산과 통영·고성 두 곳에서 승리를 거머쥐면 황 대표를 중심으로 한 당내 구심력은 더욱 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황 대표가 당내 산적인 과제들을 마른 채 경남에 상주하며 4·3 보선 승리에 열을 올리는 이유도 이때문이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정치권에서는 황 대표가 5·18 모독 징계를 마냥 미뤄서는 안 될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당내에선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일인 5월 18일이 다가오기 전에 일찌감치 5·18 모독 징계에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말이 나온다. 시간을 끌수록 비난 여론만 높아질 것이라 의견이다. /박지경 기자 jkpark@kwangju.co.kr

## "KT, 정·관·군 로비사단에 자문료 20억"

### 민주당 이철희 의원

KT가 지난 2014년 1월 황창규 회장 취임 이후 정치권 인사, 군인과 경찰, 고위 공무원 출신 등 14명을 경영고문으로 위촉, 고액의 급여를 주고 각종 로비에 활용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24일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에 따르면 KT는 정치권 인사 6명, 퇴역장성 1명, 전직 지방경찰청장 등 퇴직 경찰 2명, 고위 공무원 출신 3명, 업계 인사 2명을 자사 경영고문으로 위촉해 매달 자문료 명목의 보수를 지급했다. KT가 이들에게 지급한 자문료 총액은 약 20억원에 이른다. KT가 경영고문을 집중적으로 위촉한 시기는 2015년 전후로 ▲유

료방송 합산규제법 ▲SK브로드밴드·CJ헬로비전 합병 ▲황 회장의 국감 출석 등의 현안이 줄지어 때렸다.

2016년 8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KT 경영고문으로 활동한 남모씨는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과 18대 대선 박근혜 캠프 공보팀장을 지냈다. 17대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위원을 지낸 박성범 전 한나라당 의원은 2015년 9월부터 2016년 8월까지 매달 603만원을 받고 활동했다. 정치권 출신 고문들의 매달 자문료는 500만~800만원에 달했다. 군 출신 경영고문들은 KT의 정부 사업 수주를 도운 정황이 나타났다고 이 의원은 말했다. /박지경 기자 jkpark@kwangju.co.kr

## 여야 지도부 'PK 결투' 후끈

### '4·3 보선 창원 성산' 민주·정의당 단일화 후보 오늘 발표

경남 창원 성산과 통영·고성에서 치러지는 4·3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여야가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이번 승부에서 승리해야 정국 주도권을 쥐고 내년 4월 총선을 대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당장 여야 지도부의 발걸음은 공식 선거운동 시작을 전후로 일제히 경남으로 향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정의당 이정미 대표 등은 창원에서 머물며 지방 후보 지원에 나섰고,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도 창원성산과 통영·고성을 오가며 '출퇴근 도장'을 찍다시피 하고 있다.

일단 전반적인 판세는 누구의 우위도 점칠 수 없는 초박빙인 가운데 창원 성산 보선은 24~25일 민주당 권민호 후보와 정의당 여영국 후보 간 여론조사 단일화가 최대 변수다. 이후 범진보 후보와 한국당 강기운 후보 간 양자 구도가 형성되면 선거전은 더욱 뜨겁게 달아올라 전망이다.

통영·고성의 경우 전통적으로 한국당 지세가 강해 한국당 정점식 후보가 일단 민주당 양문석 후보를 선거 초반 앞서서 분위기지만, 어느 한쪽의 승리를 점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실제 지난해 6·13 지방

선거에서 민주당 소속인 강석주 통영시장과 백두현 고성군수가 당선된 만큼 한국당도 안심할 수 없다는 관측이다.

민주당은 선거운동 기간 국회 상임위원회별로 경남에 내려가 지역 현안을 듣고 예산과 정책 토론회를 할 예정이다. 전국적인 예산과 정책 지원으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호소하면서 경기 침체의 직격탄을 맞은 경남 지역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의 표심을 사로잡겠다는 전략이다.

한국당은 이번 선거에서 '문재인 정부 심판론'을 내세우고 있다. 경남의 지역경제를 살리고 민생 현안과 함께 안보를 지킬 대한 정당인 되겠다는 것이다. 황교안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는 일찌감치 경남으로 총출동한 상태다. 오는 28일에는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연 후 다시 창원성

산과 통영·고성으로 내려가 오는 29~30일 진행되는 사전투표를 고려한다. 정의당은 창원성산이 고(故) 노환전 전 의원의 지역구인 만큼 이 지역을 반드시 사수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우선 여영국 후보의 단일화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보선에서 창원성산에만 후보를 낸 바른미래당은 한달 가까이 창원에 거주해 온 손학규 대표를 중심으로 이재한 후보 지원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일단 판세 자체가 혼전인 상황"이라며 "결국 투표함을 열어봐야 결과를 알 수 있을 전망이다"며 민주당과 한국당 모두 패배시 상향된 정치적 타격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 與 "교학사 盧 전대통령 비하사진 법적 대응"


도서출판 교학사에서 지난해 8월 펴낸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참고서에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합성 사진이 실려 파문이 일고 있다.

교학사는 지난 22일 사과하고 해당 수험서 폐기 작업에 들어갔지만, 노 전 대통령 추모와 여론은 법적 조치를 검토하는 등 강력한 대응에 나섰다.

사진에는 지난 2010년 방영된 TV 드라마 '추노' 출연자 얼굴에 노 전 대통령 얼굴을 합성한 사진이다. '불잡힌 도망 노비에게 낙인을 찍는 장면'이라는 사진 설명이 붙어 있는데, 출처는 '드라마 추노'라고만 돼 있고 저작권자인 KBS를 적시하지 않았다.

이 사진은 '디시인사이드'의 한 코너였던 '일간베스트 게시물'이 독립해 나온 커뮤니티 사이트 '일간베스트(일베)'에 노 전 대통령을 조롱할 목적으로 실린 게시물로 전해졌다.

노무현 재단과 민주당을 비롯한 여론은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관계 당국 조사를 촉구하는 등 강력한 대응에 나섰다. 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 비하 사진을 게재한 교학사 교과서 사태는 천인공노할 만행"이라며 "어불췌 넘길 일이 아니다. 관계 당국이 나서야 한다. 경위를 철저히 조사해서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박지경 기자 jkpark@kwangju.co.kr



**지오옥션 부동산 중개법인(주)**

"30년 경력의 조역사 010-6211-4585"

**경,공매 컨설팅**

**수익형 추천 물건**

- ★ [건물] 광주 광산구 월곡동 (준주거지역)  
토지:1686,50㎡(510평) 건물:3,000,80㎡(907,74평)  
지상2층 매매가:45억 중심상권, 아파트밀집지역
- ★ [건물] 광주 동구 금남로5가 (중심상업지역)  
토지:912,50㎡(276평) 건물:1,477,64㎡(446,9평)  
지하1층 지상4층 매매가:48억 대로변, 전시효과최상
- ★ [건물] 광주 광산구 송정동 (일반상업지역)  
토지:1,349㎡(408평) 건물:1,350,03㎡(408,3평)  
지하1층 지상4층 매매가:55억 8차선대로변
- ★ [건물] 광주 동구 장동 (준주거지역)  
토지:136,20㎡(41,20평) 건물:265,58㎡(80,34평)  
지하1층 지상3층 매매가:15억 문화전당역 대로변, 전시효과최상  
대로변, 지하철역세권, 전시효과 최상, 수익률최상
- ★ [건물] 광주 광산구 하남동 (준주거지역)  
토지:979,70㎡(296,36평) 건물:1928,89㎡(583,49평)  
지상4층 매매가:65억 대로변, 아파트밀집지역, 상권최상, 수익률최상
- ★ [서구] 광주 서구 치평동 (중심상업지역)  
토지:434,44㎡(131,4평) 건물:2536,91㎡(767,42평)  
지하1층 지상7층 매매가:55억 이마트인근, 상권최상, 수익률최상

**병원**

- ★ [의료시설] 광주 광산구 신가동  
토지:900㎡(272평) 건물:1,900㎡(547평) 지상6층 매매가:36억
- ★ [의료시설] 광주 동구 학동  
토지:770㎡(233평) 건물:1,458㎡(441평) 지하1층 지상4층 매매가:30억  
아파트 밀집지역, 대로변, 조대병원인근
- ★ [의료시설] 광주 광산구 우산동  
토지:580,40㎡(175,57평) 건물:2,889,86㎡(874,18평)  
지하2층 지상6층 매매가:37억 상권밀집지역에 위치, 주변 아파트밀집지역
- ★ [의료시설] 광주 광산구 신가동  
토지:5700㎡(1700평) 건물:6500㎡(1900평)  
지하1층 지상4층 매매가:130억  
건물2층, 신법적용 350베드 가능 요양원 40베드 별도, 주차장넓음

**토지**

- ★ [토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강정동 토지:3,891㎡(1177평) 매매가:35억
- ★ [토지] 광주 북구 삼각동 -토지:5,385㎡(1629평) 매매가:60억  
투자 가치 최상, 도로변 광고효과 좋음, 분할가능
- ★ [토지] 전라남도 여수시 주상동 -토지:9,157㎡(2770평) 매매가:64억  
도로 인프라 최고, 공장이나 물류창고 적합
- ★ [토지] 전라남도 함평군 학교면 죽정리  
토지:15,953㎡(4825평) 매매가:12억1천만 원 자언취락지구, 10m도로접
- ★ [토지] 전라남도 곡성군 오산면 봉동리  
토지:52,504㎡(15882평) 매매가:8억 입마, 계획관리지역

**경매**

- ★ [공장] 북구 월출동 공장 대지:1594,9㎡(482,5평) 건물:1260,7㎡(381,4평)  
감정가 14억4천3백32만원 최저가(70%)10억1천32만원
- ★ [토지] 나주시 남평읍 오계리 대지 25351㎡(7668,7평)전원주택단지적합  
감정가 27억1천2백255만원 최저가(70%)18억9천8백79만원
- ★ [주유소] 광산구 오운동 대지:918㎡(277,7평) 건물:178,8㎡(54,1평)  
감정가 4억7천8백 17만원 최저가 4억7천8백 17만원

- ★ [공장용지] 나주시 산포면 신도리 대지:11065,1㎡(3347,2평)  
감정가 24억7천8백만원 최저가 19억8천3백만원
- ★ [의료시설] 함평군 월야면 월거리 대지:1139㎡(3369,5평) 건물:5530,56㎡(1612,5평)  
감정가 40억3천5백만원 최저가(70%) 28억2천4백만원
- ★ [양계장] 함평군 월야면 양정리 대지:136695,78㎡(41350,5평) 건물:24737,02㎡(7482,9평)  
감정가 62억7천2백만원 최저가(70%) 43억9천만원
- ★ [숙박시설] 광산구 우산동 대지:627,8㎡(189,9평) 건물:2122,01㎡(641,9평)  
감정가 35억7천만원 최저가 35억7천만원

**광주·전남 병원건물(요양, 한방)사우나건물 전문상담 매매·임대 다량보유·경공매 전문**

**대표공인중개사 전민규 010-4234-8640, 062-714-2251**